#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비보존 주주의 권리행사

비보존 주주 여러분, 본격적으로 비보존 소액주주행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어느덧 3개월 가까이 지나 제16기 비보존 정기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보존은 작년 주주총회와 공지문에서 약속한 사항들은 제대로 지키거나 이행한 것이 없고, 작년 6월부터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질의와 항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본격적인 주주행동을 위한 Excel 형태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는 이름의 글자를 가리고 인쇄해 주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자 주주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를 오히려 '불순한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외쳤던 기술이전과 코마케팅은 감감무소식이어서 주가는 내내 바닥에 있고, 주주들은 작년처럼 관계사 비보존 제약의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없을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국 임상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비보존은 2021년부터 계속해서 볼티아의 대출에 대하여 218.7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과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작년 초에는 불리한 조건의 전환사채도 발행되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해 왔고, 회사의 자금이 특정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의 이사회 진입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보다 더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관 규정 변경을 위하여 3%의 지분을 모아 상법에 규정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까지 확답을 미루다가, 이사회 결의 이후에는 주주제안 안건 중 세 가지는 상정하고, 다른 세 가지는 상법 시행령 제12조를 이유로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심문기일이 다가오니 돌연 주주제안 안건을 모두 상정함과 동시에 소액주주들의 견제를 막고자 감사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버렸습니다. 주주행동이 불편했는지 비보존 제약도 같은 방향으로의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주주연대 인증방에까지 회사 측 인원이 참여하여 동향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참고자료로 제시됨).

비보존 김연봉 감사의 임기는 2026. 3. 29.까지입니다. **제2-1호 의안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소액주주 입장에서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감사를 선임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순한 목적'의 정관 변경 등 회사가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하여 주시고, 이와는 달리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행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주들은 수십 퍼센트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발행 주식 수를 더욱 늘릴 스톡옵션이 가당키나 하겠으며 무엇보다 주가를 보면 회사가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있음이 자명한데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주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더 이상 회사가 주주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주주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결권 행사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방향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위임을 부탁드립니다.